

배포일시	2018. 11. 26.(월) 14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	담당자	과 장 임 하 권 사무관 김 재 욱
		전화번호	02-2181-0041 02-2181-0042

푸른 열정의 청소년들, 지진 대응문화에 앞장서다!

- 기상청,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청소년 동아리 '땅울림' 활동보고회 개최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지난 11월 24일(토) 국립국제교육원(경기도 성남)에서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동아리 '땅울림'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.
 - 이번 보고회는 땅울림 동아리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전국 중·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'땅울림'은 지난 7월 14일부터 41개 팀이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과학적 발생 원리와 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홍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.
- 올해 선발된 '땅울림' 동아리 학생들은 △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발생 원리와 탐구 활동 △지진 관련 자연재해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△지진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기관 취재 △UCC와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△온·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활동을 벌였다.
 - 또한, 학내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, 과학 축전 등에 참가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.

□ 아울러, 학생들은 지진 발생 진앙지와 주상절리대, 단층지역을 탐험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흥해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.

○ 특히, 전년도 땅울림 동아리 활동 대상을 받은 이천사동중학교(경기)는 대상 수상금을 11.15 포항 대지진 이재민들에게 기부하고, 올해는 학내 모금을 통해 포항 흥해 체육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양말, 꿀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.(이천사동중학교 막으마팀(지도교사 이원숙))

□ 한편, 땅울림 동아리의 더 자세한 활동 내용은 <https://blog.naver.com/voiceofearthquake>(공식 블로그)에서 볼 수 있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청소년들의 땅울림 동아리 활동 덕분에 국민들의 지진 관련 자연재해 인식도 높아졌을 것”이라며, “땅울림 활동이 올바른 지진 대응문화 형성에 푸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: 사진



2018년 전국 중·고등학생 땅울림 동아리 활동 보고회
일시 : 2018년 11월 24일(토) 장소 : 국립국제교육원 주최 :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